

## 5/3(화) 대하 6-9장 성전, 기도하는 집

“나의 하나님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6:40)”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6장, 7:12, 사56:7, 막11:17).

제단 앞에서 서약한 맹세들과 기도들은 구속력이 있습니다(6:22-23 이하 참고).

죄로 인해 삶의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6:28-31).

신앙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6:32, 사2:1-4).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8:12-14).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일지라도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 때와 절기에 따른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규례대로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들이 직임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기초부터 준공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습니다(8:16).

하나님께서서는 솔로몬과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7:12).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7:14)”

하나님은 겸비한 자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

그러나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화려한 성전과 건물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

\* 7:14, 30:11,32:26,33:12,19,23,34:7,36:12

\*\* 7:19-22, 36:14,18-19, 신28:37

나는 <겸비한 자>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 ❶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 ❷ 세상을 바라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합니까?

시작기도 + 통독 대하 6-9장